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November 2025 Issue | Vol. 7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2025년 경제에 결정적인 재정 조치 —page 1-2
- SEC,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 강력 추진 — page 2-3
- 한국 지원 종자 시설, 필리핀 쌀 산업 강화에 기여 — page 4
- APEC, 2026년 수출 둔화 전망 — page 4-5
- 8 월 외 국 인 직 접 투 자 (F D I) 순유입 40.5% 급감 — page 5-6
- 정부, GDP 회복에 낙관적 — page 7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년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8
- [Nov 27, 2025] 제20회 JFC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8

2025년 경제에 결정적인 재정 조치

November 10, 2025 | Bless Aubrey Ogerio| BusinessMirror

A vibrant morning rainbow stretches over Makati's business district.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함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집행—특히 지출 방식—이 2025년까지의 경제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은 7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해, 전 분기의 5.5% 및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에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BusinessMirror 기사)

Reyes Tacandong & Co.의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 는 올해 전체 성장률을 5.6%로 예상했으나, 정부 지출 지연이 회복세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분간 재정정책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며 "지출이 계속 억제된다면 민간 부문의 회복력과 투자가 성장 지속의 핵심이 될 것" 이라고 Viber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한편, 유니온뱅크(UnionBank) 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카를로 아순시온(Carlo Asuncion) 은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긴축된 금융 여건, 약한 정부 지출, 그리고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가계 소비는 비교적 견조했지만,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공공투자 확대와 무역 의존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아순시온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수요 둔화와 재정 제약으로 인한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가계 소비는 3분기에 4.1% 증가했으며 정부 지출은 5.8% 상승했다. 수출은 7% 증가, 수입은 2.6% 늘었지만,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2.8%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전체 GDP 성장의 74%를 차지했지만, 그 기여도(3%포인트)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부진한 정부 지출과 약한 투자 활동이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ING 이코노미스트들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5.2%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ING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이 12월에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 는 "3분기 성장 둔화는 최근의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영향을 반영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성장률은 4년여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이다.

2025년 3분기 GDP 수치는 올해 누적 평균 성장률을 5%로 끌어내렸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치(5.5~6.5%)를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 성과는 대만, 한국, 베트남 등 역내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는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Cont. page 2]*

2025년 경제에 결정적인 재정 조치

[Cont. from page 1]

부패와 관세 인상, 투자심리 위축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변화가 투자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국정연설(SONA)에서 언급한 부패 의혹이 제기된 홍수 방지 사업 조사 이후, 공공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는 건설 경기와 가계 소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대규모 정치 혼란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부패 조치가 확대되면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규 프로젝트와 공공 조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G 또한 부패 수사와 관세 인상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의 기본 관세율은 당초 17%에서 7월에 19%로 인상되어, 아세안 역내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ING는 "부패 스캔들로 정부 지출이 철저한 검증 대상이 되면서 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리잘상업은행(RCBC) 의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 는 "통치 개혁과 지속가능성 관련 개혁이 시행된다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는 이번 3분기 성장 둔화를 '일시적 조정 국면(temporary hiccup)'으로 규정하며, 지출 부진이 원인이지만 재정 개혁과 효율적인 인프라 예산 집행을 통해 2026년에는 더 강한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BusinessMirror 기사)

기대치 하향?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 는 재정 모멘텀 둔화를 반영해, 2025년 성장률 전망을 5.3%, 2026년은 5.6%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카를로 아순시온(Carlo Asuncion) 은 물가 안정과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경기 둔화를 완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9월과 동일하며 전년 동월(2.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 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GDP 성장률이 5%를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4%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 농업 · 정부 지출은 감소한 반면 수출은 1.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 소비와 기상 여건 개선이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는 현재의 통화완화 사이클 동안 25bp(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두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ING 는 민간소비와 농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부진이 성장세를 계속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Image credits: Michael O. Ligalig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1/10/fiscal-moves-crucial-to-2025-economy/

SEC,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 강력 추진

October 24, 2025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It's up for second exposure, the independent directors memorandum circular," SEC commissioner McJill Bryant Fernandez told The STAR.

STAR/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임기 제한을 규정하면서도 재직 보장을 제공하는 메모랜덤 서클(Memorandum Circular) 두 번째 초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SEC 위원 맥질 브라이언트 페르난데즈(McJill Bryant Fernandez) 는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사외이사 관련 메모랜덤 서클의 두 번째 초안 공개"라며 "받은 의견을 반영해 두 번째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위원은 초기 초안에서 제안된 임기 제한, 재직 보장, 제재 조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다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해 제안된 의견도 있었다. 즉, 다른 관할권과 비교하며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nt. page 3]*

SEC,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 강력 추진

[Cont. from page 2]

맥질 브라이언트 페르난데즈(McJill Bryant Fernandez) 위원은, SEC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규정한 메모랜덤 서클(Memorandum Circular) 두 번째 초안을 이번 달 또는 늦어도 12월까지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올해 안에 공개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9월 30일, 사외이사의 임기 기간과 임기 제한 규정을 담은 초안 메모랜덤 서클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필리핀 개정 회사법(Republic Act 11232, Revised Corporation Code) 하의 국제 모범 사례와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상장 기업과 등록 발행사는 10월 15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SEC 위원장 프랜시스 림(Francis Lim)은 이전에, 초안 공개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사외이사는 최대 누적 9년까지 재임 가능하며, 이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출될 수 없지만, 비사외이사(non-independent director)로는 계속 활동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9년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를 계속 선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메모랜덤 서클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3년 임기의 정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 제한이 적용된다.

즉, 사외이사의 최대 누적 임기는 9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최대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동일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100만 페소(P1 million)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9년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면제 조항은 없앨 것" 이라며, "동시에 사외이사가 진정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3년 재임 보장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즉, 선거로 선출되면 1년이 아니라 3년 임기가 보장된다" 고 덧붙였다.

또한 림 위원은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의 중개인 이사(broker directors)에도 임기 제한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PSE의 중개인 이사에게도 기존 사외이사 및 비중개인(non-broker) 이사와 유사한 임기 제한을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PSE의 사외이사와 비중개인 이사는 임기 제한이 있지만, 중개인 이사에는 제한이 없다.

림 위원은 "이번 연구 중인 아이디어의 취지는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하고, 다른 중개인들도 PSE 이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개인 이사(broker directors) 는 거래량·거래금액 및 납입자본 비율에 따라 PSE 회원을 대표하는 인사이며, 비중개인 이사(non-broker directors) 는 어떠한 중개인, 딜러, 거래소 회원과도 관련이 없는 인사를 의미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10/2485989/sec-doubles-down-proposed-term-limit-independent-directors

한국 지원 종자 시설, 필리핀 쌀 산업 강화에 기여

November 10, 2025 | Vonn Andrei E. Villamiel | BusinessWorld

PHILSTAR FILE PHOTO

필리핀과 한국은 누에바에시카 주 무뇨즈 과학도시(Science City of Mu□oz)에 위치한 필리핀 쌀 연구소(PhilRice) 에 신규 쌀 종자 가공 및 저온 저장 시설을 개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쌀 종자 공급망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hilRice는 성명에서, 이번 시설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MAFRA)와 한국농촌공사(KRC)의 자금 지원으로 건립되었으며, 글로벌농업정책연구소(Global Agriculture Policy Institute) 가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은 쌀 생산에 사용되는 고품질 인증 종자의 가공, 저장, 유통 기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PhilRice는 이번 프로젝트가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을 줄이고, 종자 가공 속도를 높이며,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인증 종자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PhilRice는 성명에서 "이번 사업은 종자 공급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필리핀의 식량 안보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어 "종자 가공 및 저장 단지는 균일한 건조와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쌀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과 필리핀 간 지속적인 협력을 상징한다" 라고 덧붙였다.

같은 성명에서 MAFRA(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재 김(Shin Jae Kim) 국장은 이번 사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리핀 농업 기술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개관식은 PhilRice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필리핀과 한국 간 지속적인 농업 협력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agribusiness/2025/11/10/710896/korea-funded-seed-facilities-to-boost-philippine-rice-sector/

APEC, 2026년 수출 둔화 전망

"각국이 무역 원활화와 지역 경제 통합 심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무역 제한 조치와 무역 구제책은 보다 민감하고 신중하며 분절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시사한다."

November 10, 2025 | Toby Magsaysay | Daily Tribune

"It's up for second exposure, the independent directors memorandum circular," SEC commissioner McJill Bryant Fernandez told The STAR.

STAR/File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제조업 수출 성장률이 2026년 1.1%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적 조기화와 첨단 기술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최신 APEC 지역 동향 분석(APEC Regional Trends Analysis)에서 밝혔다.

APEC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 PSU)의 카를로스 쿠리야마(Carlos Kuriyama) 단장, 애널리스트 레아 크리솔로헤르난도(Rhea Crisologo Hernando), 연구원 글라서 니뇨 바스케즈(Glacer Ni□o Vasquez)는, 올해 무역 증가세가 대부분 예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배송을 앞당기고 재고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국이 무역 원활화와 지역 경제 통합 심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무역 제한 조치와 무역 구제책은 보다 민감하고 신중하며 분절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시사한다" 고 말했다.

APEC 수출, 견조한 성장세

2025년 APEC 지역의 상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6.5%, 6.1% 증가했으며, 무역량은 각각 8.8%, 8.5%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첨단 기술 수요,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금속 및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의 반도체 매출은 반도체 생산 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Cont. page 5]*

APEC, 2026년 수출 둔화 전망

[Cont. from page 4]

PSU 보고서 작성진은 "이러한 발전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첨단 기술 산업의 강한 수요가 단기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는 공급 병목, 무역 정책 불확실성, 가격 변동,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APEC 전체 GDP는 2025년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다만 보고서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2026년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보다 스마트한 재정 정책, 기술 투자, 강력한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리야마 단장은 APEC가 개방적 대화를 이끄는 역할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SU팀은 "지속적인 대화와 공동 목표 설정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tribune.net.ph/2025/11/09/apec-sees-export-slowdown-in-2026-2

8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0.5% 급감

November 11, 2025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필리핀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이 8월 한 달 동안 40.5% 급감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월요일 발표했다. 이는 채권 등 부채성 투자 순유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US dollar and euro banknotes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on July 17, 2022. — REUTERS/ DADO RUVIC/ILLUSTRATION

중앙은행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순유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0.5% 감소한 4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5년 6월 기록된 3억 7,600만 달러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7월 12억 6,800만 달러에서 61% 급락했다.

BSP는 성명에서 "2025년 8월 필리핀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여전히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일본과 제조업 부문에서 유입이 주도적이었다"고 밝혔다.

8월 필리핀으로의 채권 등 부채성 투자 순유입은 전년 동월 5억 5,300만 달러에서 73.8% 급감한 1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는 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자와 필리핀 내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의 기업 간 대출 · 차입으로 구성된다.

반면, 주식 및 투자펀드 지분 투자는 전년 동월 2억 7,600만 달러에서 26.1% 증가한 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주식 자본 순투자(수익 재투자 제외)**는 전년 6,600만 달러에서 1억 4,6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식 배치(Equity placements)는 1억 300만 달러에서 1억 5,800만 달러로 53.2% 증가한 반면, 철수(Withdrawals)는 3,7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로 66.2% 감소했다. 또한, 수익 재투자(Reinvestment of earnings)는 전년 2억 1,000만 달러에서 2억 300만 달러로 3.6%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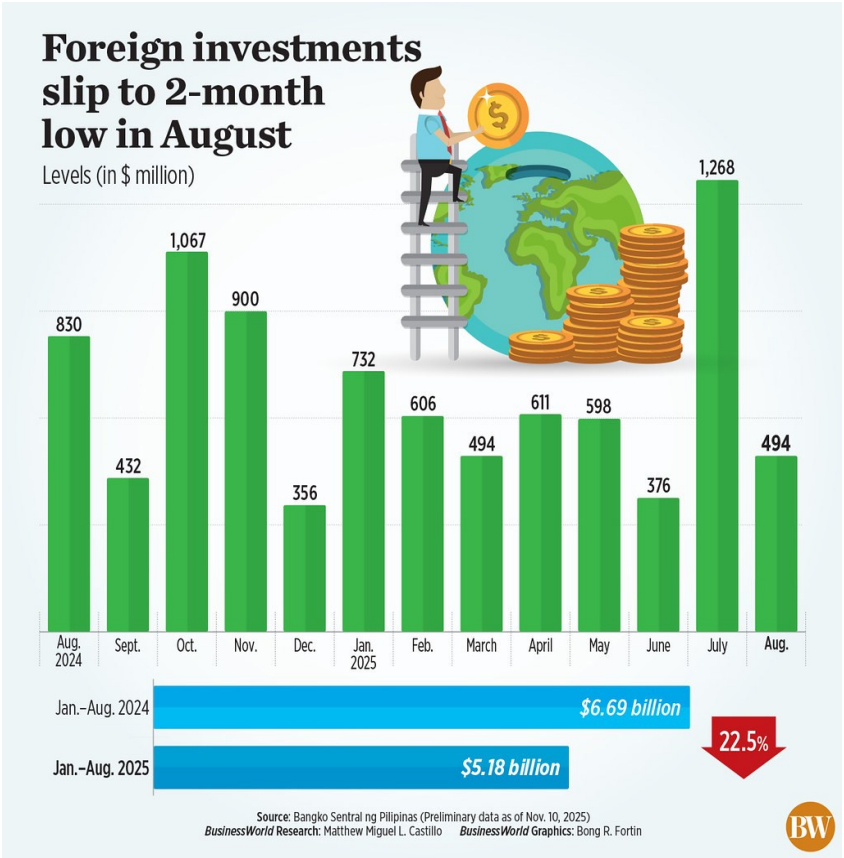
유니온뱅크(Union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O. Asuncion)은 Viber 메시지에서 이번 FDI 순유입 감소가 글로벌 악재와 국내 투자 심리 약화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거주자의 채권 투자 순유입 급감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가 신중한 상황에서 기업 간 대출과 금융 활동이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순시온 이코노미스트는 8월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무역 둔화, 미국 고관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환경 긴축을 꼽았다.

한편,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미국 관세와 기타 보호무역 정책, 홍수 방지 논란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7~8월 태풍으로 인한 영업일 감소가 FDI를 포함한 많은 국내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Viber 메시지에서 설명했다 .

[Cont. page 6]

8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0.5% 급감

[Cont. from page 5]



상반기 FDI 순유입 감소

올해 1~8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전년 동기 66억 8,600만 달러에서 22.5% 감소한 5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식 및 투자펀드 지분 투자가 전년 21억 9,500만 달러에서 18.7% 줄어든 17억 8,600만 달러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수익 재투자를 제외한 주식 자본 순투자 역시 전년 13억 4,900만 달러에서 35.5% 줄어든 8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식 배치(Placements)는 13억 6,400만 달러로 20.1% 감소했지만, 철수(Withdrawals)는 4억 9,400만 달러로 37.6% 증가했다.

한편, 비거주자의 채권 등 부채성 투자 순유입은 전년 44억 9,000만 달러에서 24.4% 감소한 33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25년 1~8월 주식 자본 배치는 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서 유입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분야로 집중됐다.

유니온뱅크(Union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O. Asuncion)은 "국내적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서의 주식 배치는 여전히 플러스였으며, 특히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정책 명확성, 물류 병목, 집행 격차 등 문제로 여전히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FDI 순유입이 올해 마지막 분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순시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치는 추세 대비 낮지만, BSP의 연간 75억 달러 목표 달성은 여전히 가능하며, 다만 하방 위험은 존재한다.

7~8월 주식 배치와 수익 재투자 증가세는 고무적이며,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계절적 투자 흐름이 회복되면 4분기에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더 많은 FDI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연준(Fed)과 BSP가 향후 몇 달간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입 비용이 낮아져, 신규 투자와 확장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SP는 지난해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기준금리를 175bp 인하하여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4.75%로 조정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Eli M. Remolona, Jr.)**는 올해와 2026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는 12월 11일에 열린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1/11/711106/fdi-net-inflows-slump-by-40-5-in-august/

정부, GDP 회복에 낙관적

November 11, 2025 | Jean Mangaluz | Philstar.com

Photos show the buildings at the Ortigas Business District on November 8, 2022.

STAR / Michael Varcas

필리핀 마닐라 — 기록적인 저점 이후, 청와대는 2025년 마지막 분기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GDP는 3분기 4.0%로 둔화되며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계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DEPDev)는 경제 둔화가 지속적인 홍수 방지 관련 부패 스캔들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다.

청와대 대변인 **클레어 카스트로(Claire Castro)**는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자료를 인용하며, 연말 연휴 시즌이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또한, 올해 마지막 분기에 각 정부 기관에 지급될 1조 3,070억 페소 규모의 예산 집행으로 정부 지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 3,070억 페소는 재난 대응,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 **클레어 카스트로(Claire Castro)**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Ferdinand Marcos Jr.)이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필리핀어로 "이번 예산 집행은 정부가 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 부문에 보여줄 것이며, 이는 경제, 소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스캔들과 연이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자, 카스트로는 청와대가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간 GDP 성장 목표는 최소 5.5%**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 마르코스 행정부가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는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년 연속 사례가 된다.

경제계획개발부(DEPDev) **아르세니오 발리스크안(Arsenio Baliscan)**은 정부가 특히 대규모 부패 스캔들 속에서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DP 둔화는 공공 건설 부문의 지연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공공사업고속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는 부패 조사 동안 수십 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홍수 방지 관련 조사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또한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11/2486449/palace-upbeat-gdp-recovery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UPCOMING EVENT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할 스폰서(테이블 스폰서 또는 경품 스폰서)를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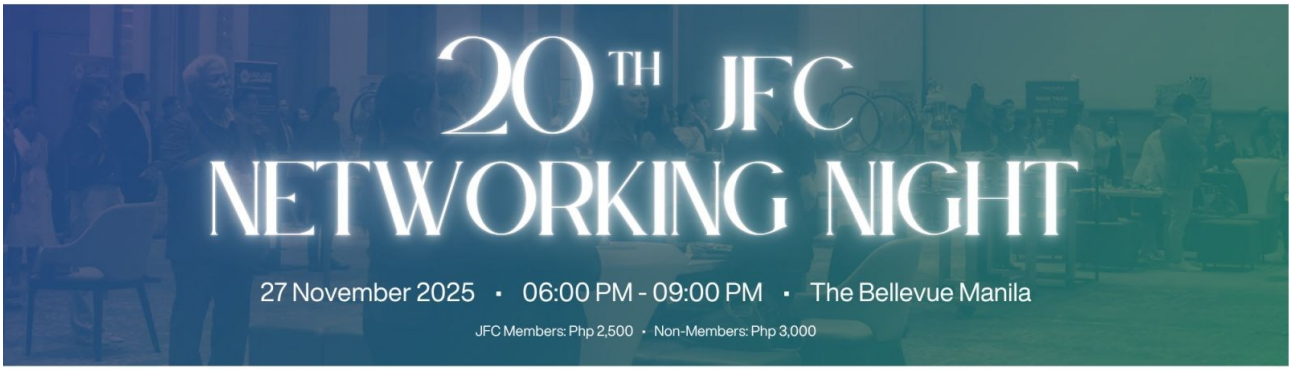
이번 즐거운 행사는 한국과 필리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시즌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Ms. Chi / Ms. Sang
전화: +632-8885-7342
휴대폰: 09178015920 | 09158887296 (Viber 및 KakaoTalk 모두 가능)

ORGANISED BY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JCCIPI · KCCP · PAMURI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